

제16권 14호

2026. 7. 27 ~ 2026. 8. 9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중동 전쟁 이후의 세계
- 이슈분석** 시니어케어 관련 규제 변화와 전망
- 금융경영브리프** Starling Bank, 스마트폰 움직임 감지 보안 시스템 구축
로손,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범 도입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다시 고조된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
외 환 : SK하이닉스發 수급개선으로 하락
부 동 산 :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으로 시장 위축 전망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김혜미(hmikim)
연구원	이시은(sieunyi)

논단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	---------------

이슈분석

연구위원	이령화(ryoung.h)
------	---------------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왕다운(wdw)
연구원	송형은(hesong)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연구원	민현하(hyunhamin)
외 환 연구원	이동현(dhlee11)
부동산 수석연구원	이재원(jaewon.lee)

금융지표

연구원	하온누리(onrha)
-----	-------------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제16권 14호

2026. 7. 27 ~ 2026. 8. 9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 01 | 논단 | 중동 전쟁 이후의 세계 |
| 04 | 이슈분석 | 시니어케어 관련 규제 변화와 전망 |
| 08 | 금융경영브리프 | Starling Bank, 스마트폰 움직임 감지 보안 시스템 구축
로손,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범 도입 |
| 12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다시 고조된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
외 환 : SK하이닉스發 수급개선으로 하락
부 동 산 :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으로 시장 위축 전망 |
| 18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중동 전쟁 이후의 세계*

김 영 준 연구위원

2월말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은 에너지, 무역, 안보·동맹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대한 신뢰 하락은 기존의 효율 중심이었던 무역 공급망을 안전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미국의 안보 우산과 국제법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각국은 실리를 좇아 다자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환경의 장기화도 예상되고 있다. 절대적인 에너지 수입국이자 무역국인 한국에게 이러한 변화 흐름은 생존의 문제이다.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변화를 산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미국-이란 전쟁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시작된 전쟁이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당초 미국이 내세웠던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데 성공했지만 더욱 강경한 정권이 들어섰으며, 핵 프로그램의 무력화는 물론이고 미사일 발사대와 대리세력 등의 위협 제거에도 실패했다. 심지어 6월말 오고갔던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상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란의 정권 교체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뜻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2015년 핵합의 이래 수없이 되풀이 해온 약속의 재탕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장악력만 공인(?)받은 상황이다.

미국은 전쟁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

미국으로서는 장기간 지속된 전쟁으로 막대한 비용과 걸프 동맹국들의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전략적 성과를 획득하지 못했다. 무력으로 이란의 정권을 굴복시키려던 시도가 오히려 상대방의 전의(戰意)를 높이고, 막대한 군사력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지 못한다는 강대국의 한계만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오죽하면 “미국의 자해(自害) 행위였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전쟁이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 전쟁을 치르면서 에너지 시장과 무역 시스템, 안보·동맹이 동시에 흔들렸고, 그 어느 것도 전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기 힘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전쟁 이전과 다를 에너지, 무역, 안보·동맹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에너지: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최악의 시나리오를 모면한 원유시장

원유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모면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의 약 20% 가량이 막혔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브렌트유 기준) 안팎에서 정점을 찍는 데 그쳤다. 전략비축유(SPR) 방출과 유류세 인하 등 정책 대응이 적절히 이뤄졌고, 전쟁 이전 시장에 쌓여 있던 원유재고와 미국 셰일의 완충 능력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책의 승리이자 운이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걸프 지역의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이 정상 궤도로 복귀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그리고 이는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재편을 앞당기고 있다. 원유가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여전하지만, 세계 경제가 좁은 해협 하나에 인질로 잡힐 수 있다는 취약성이 확인된 이상,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생태계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가?’이다. 태양광 패널과 2차전지, 전기차 등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에서 중국은 이미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에너지 생태계의 무게중심이 ‘원유’에서 ‘재생에너지’로 옮겨간다면, 그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은 화석연료 시스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미 시작된 다음 게임의 승자가 되기 어렵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 지키려고 한 옛 질서가 동시에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무역과 공급망: 효율에서 각자도생으로

효율의 시대에서 안전의 시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무력화는 단순히 원유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무역의 신뢰 자체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타격받은 글로벌 무역 질서가, 이제 ‘핵심 길목이 언제든 막힐 수 있다’는 학습효과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기술과 원자재, 최종품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효율 대신 안전을, 적시생산(JIT) 대신 재고 확보를, 단일 경로 대신 우회로를 택하고 있다. 세계화가 추구해 온 ‘가장 짠 곳에서 만들어 가장 빠르게 공급한다’는 원칙이 ‘가장 안전한 곳에서 만들어 끊임없이 공급한다’로 바뀌고 있다. 효율의 시대가 가고 안전의 시대가 온 것이다.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안보와 동맹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번 전쟁으로 미국의 안보 우산과 국제법의 권위가 함께 약화됐다.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미국의 안보 우산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진 걸프국과 전쟁 과정에서 이견을 여러 번 노출한 NATO 회원국은 스스로의 국방력을 도모하는 ‘각자도생’에 힘쓸 수밖에 없다. 또한 강대국이 비핵 국가를 선제 타격하는 장면을 지켜본 글로벌 사우스 중 일부는 중국이나 러시아 진영과의 접점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진영의 결속보다 실리에 따른 해처모임, 거대 양극체제보다 소규모 연대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 고물가·고금리, 그리고 기대와 현실

경제로 시선을 돌려보면 고물가·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오래갈 수 있다. 에너지·인플레이션 압력,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 안보를 명분으로 한 재고와 방위비 지출 확대는 모두 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다. 그만큼 중앙은행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운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공급망 재편과 국방비 등에 대한 지출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지출이 위축되면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공산도 크다.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생산성 혁명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그 과실은 장기적인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과 비용 상승, 막대한 투자 부담이라는 역풍이 더 거세다. 현실이 기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자산 가격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기 마련이며, 그 비용은 결국 실물 경제가 떠안게 될 것이다.

❖ 돌아갈 수 없는 세계, 한국의 과제

이번 전쟁은 에너지·무역·안보·동맹의 질서를 흔들었다. 절대적인 에너지 수입국이자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게 이러한 변화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에너지 수입선과 비축 체계를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공급원 자체를 넓혀 충격 흡수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무역 공급망 역시 안전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 강화 및 다자간 안보 협력 채널의 확장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위기를 비용으로만 치를지, 산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할지는 지금으로부터의 준비에 달려 있다. 변화하는 환경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 대응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해처모임과
소규모 연대가
새로운
안보·동맹의 표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정부지출
위축될 우려

변화하는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

시니어케어 관련 규제 변화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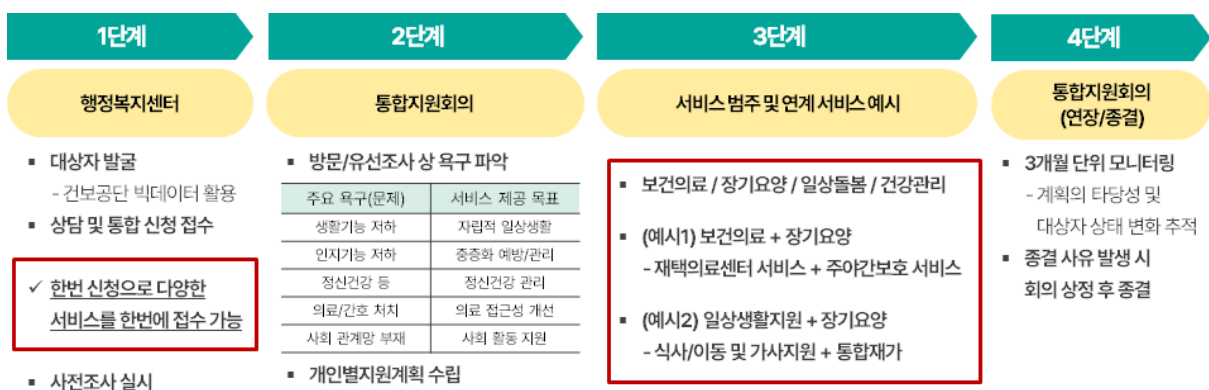
이 령 화 연구위원

'26.3월, 의료-요양-돌봄을 원스탑 연계하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분산되어 있던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사업은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확장될 전망이다. 특히 개인 영세업자의 이탈이 예상되어 향후 법인 사업자가 시장의 주요 참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돌봄환경 조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이자 관련 상품 제공자로서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금융사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 '26.3월, 의료-요양-돌봄을 원스탑 연계하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 '26.3월,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개인별 맞춤형 계획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을 원스탑(one-stop) 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지원법')」이 통과
 -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직후 100일 만에 신청·접수자가 4.6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실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은 3.7만 명 수준(1인당 평균 연계서비스 3.3건)
- 해당 법안 통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오래 거주하기 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기존과 달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보건의료, 장기요양, 건강관리, 일상돌봄의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은 해당하는 파트에 편입
 - '26~'27년은 1단계로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노인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 통합돌봄제도 구조도



자료 : 보건복지부, 하나금융연구소

■ 먼저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사전적 예방 및 중병으로의 진행을 방지하고자 재택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시스템 지속성을 위해 일차 기관의 역할을 강화

- **(재택의료센터)**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재택의료이 필요한 경우 팀을 구성해 이용자의 집에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
 - 해당 센터는 '27년까지 250개소로 확대 예정('25, 195개)이며, 집에 방문하는 팀은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조합으로 구성
- **(한국형 주치의 제도)** '환자 관리 책임'을 기준으로 수가를 지급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한국형 예방·관리 일차의료 모델'을 설계
 - '26.7월~'28년 시범사업 후 '29년부터 참여지역 확대 예정이며, 환자부담률은 20%
- 이를 통해 만성질환 고령 환자, 치매환자 등에 대해 질병 발생 전 건강한 상태 유지 및 발생한 질병의 중증도 질병으로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기대

■ 다음으로 장기요양 측면에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를 타 서비스와 함께 제공받는 체계가 마련, 재택의료와 주야간보호를 함께 신청하는 등 옵션이 다양화

- 통합돌봄사업 시행에 따라 한 번의 신청으로 보건의료+장기요양 또는 생활지원+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다양한 서비스 조합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
 - 기존에는 보건의료와 재가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의 신청 필요
- 이는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방문요양 위주 단일서비스 구조를 통합재가로 전환한 사례
 - 통합재가는 하나의 기관(주로 주야간보호 기반)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를 복합 제공하는 서비스로 하나의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장은 치매 관련 인지도·지원등급 신설 및 본인부담금 경감('18) 등에 힘입어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이며, 개인 설립 시설 비중이 크게 높음(87.7%, '24)

■ 통합돌봄 사업 지원 내용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건강관리
주요 서비스 내용	- 방문진료·왕진서비스 - 정신건강관리 - 퇴원환자 지원 - 치매발견·기본관리 - 치매전문관리 - 만성질환관리 - 통합재택간호 - 임종케어	- 방문간호·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 단기시설보호 - 장기요양 재택의료 - 통합재가 - 방문영양 - 방문재활 - 병원동행	- 중간집 등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 긴급돌봄지원사업 - 독거노인 응급안전 - 노인맞춤돌봄 - 스마트홈 돌봄	- 보건소방문건강관리 -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 노인운동프로그램 - 복약지도 - 보건소노쇠예방관리

주 : 굵은 글씨는 현재 시행 중이며, 그 외 시행 예정
자료 :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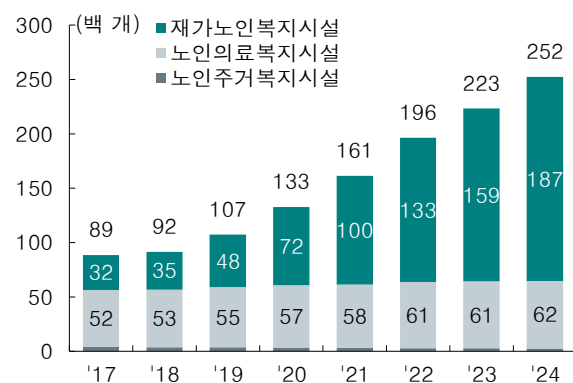
■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향후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복지시설도 단일 서비스보다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확장될 전망

-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은 보건의료 파트 등 다른 파트와 연계를 확대하며, 이전보다 등급판정 절차 진행이 더 용이해지므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장의 확대를 촉진
- 통합돌봄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시니어 손님의 니즈도 통합적으로 변화하면서 재가의료·주거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만 운영하던 기존 사업자들도 복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
 - 가령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의료서비스를 결합하거나, 의료노인복지시설에 재가서비스를 결합하는 등 복합시설로 전환
- 단, 공공/민간 서비스형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로 이는 기존 의료·주거 노인복지시설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 서비스형 주택은 동일 건물에서 건강지원센터 및 재가요양기관 연계 제공

■ 재가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대비해 시설의 질적 개선 추진 및 시설 인력 부족에 따른 AI 활용 확대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향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계점인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1인실 위주의 유니트케어형 도입 등 질적 개선이 추진될 전망
 - 일부 사업자는 이미 유니트케어형 시설을 도입했으며, 타 사업자는 의료전문기업과 연계해 의료 특화형 요양시설을 운영
- 인력의 경우 요양보호사 공급인원 증가가 수요에 미치지 못해 향후 5년 내 12.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AI 활용 확대가 예상
 - 이동·목욕 등을 보조하는 피지컬로봇, 건강·생활 상태를 확인하는 정서케어로봇 등

■ 주요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수 추이



자료 : 통계청

■ 국내 돌봄로봇 서비스 및 효과

	이동보조	목욕보조	정서케어
서비스	  		
효과	목욕, 이동, 배설 등 애로사항 경감으로 신체적 불편함 및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 효과 고독감, 우울감 등 정신적 건강 지원 약 복용, 약속 알림 등 일상생활 영위 복귀 지원		

자료 : 국립재활원, 경기복지재단, 로봇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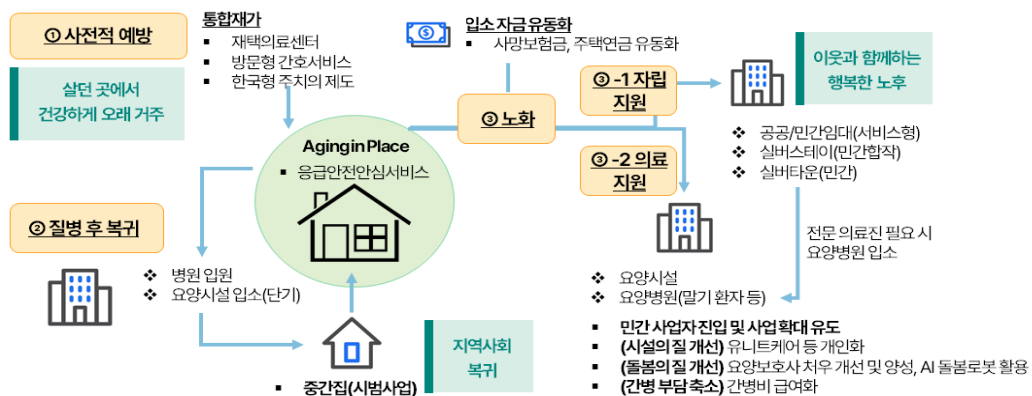
■ 한편, 통합재가기관 도입 및 운영규제 강화 등으로 향후 개인 영세업자의 이탈이 예상되며, 법인 사업자가 시장의 주요 참여자로 부상할 전망

- 재가의료노인복지시설 시장은 법인보다 개인 설립자 위주의 시장이었으나, 향후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재가기관이 도입되면 단일 서비스만 제공 가능한 개인 영세업자의 시장 이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전문인력의 팀단위 복합 서비스 제공 등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수가도 통합재가일 때 더 높게 산정되므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
- 반면 법인 사업자의 경우 자본력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시설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더 쉽게 확대 제공할 수 있어 향후 주요 참여자로 부각될 전망
- 돌봄컨설팅·제약의료계 기업을 비롯해 주요 금융사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시장에 진출했으며, 특히 토지·건물 소유규제, 부수업무 허가여부 등으로 자본력 있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향후에도 돌봄환경 조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사는 노인복지시설 시장 참여자이자 관련 상품 제공자로서 향후 역할 확대 요구가 예상되므로 관련 대응을 고민해 볼 필요

- 고령화, 치매환자 확대, 가족 돌봄 축소 등으로 시니어케어 관련 규제는 향후에도 살던 곳에서 오래 거주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전망
 - 이때 살던 곳의 정의는 주택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실버타운 등으로 확장
- 다만, 수급자 대비 시설 정원 부족, 재정 건전성 우려 가운데 돌봄환경 조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 확대 요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특히 금융사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이자 입소 자금 유동화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 제공자로서 규제 변화 모니터링과 함께 대응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 

■ 시니어케어 관련 규제 변화 방향



자료 : 하나금융연주소

Starling Bank, 스마트폰 움직임 감지 보안 시스템 구축

왕 다 윤 수석연구원

최근 스마트폰 도난이 금융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회사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英 Starling Bank는 스마트폰의 급격한 움직임을 감지하면 은행 앱을 자동으로 잠그는 보안 기능을 도입하였다. 비밀번호·생체 인증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단말기 탈취와 같은 물리적 위험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려는 시도이다. 국내 금융사도 악성 앱 탐지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보안 체계를 보완하여, 물리적 금융 안전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Starling Bank는 스마트폰 탈취 움직임을 감지해 은행 앱을 잠그는 보안 기능 도입^[1]

- Starling Bank는 스마트폰 동작 센서가 낚아채기 같이 급격한 움직임을 감지하면 은행 앱을 즉시 잠그는 보안 기능을 도입
 - 단말기가 갑자기 이동하면 잠금 해제 상태에서도 앱 접근을 차단하고 얼굴인증이나 비밀번호 확인을 거쳐야 다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기존 비밀번호·생체 인증 중심의 보안에서 벗어나 앱 이용 중 발생하는 물리적 탈취 위험까지 실시간으로 탐지해 모바일 보안의 범위를 확대
 - 스마트폰 분실 신고 이후 제조를 차단하는 사후 대응에서 탈취가 의심되는 순간 앱을 잠그는 사전 예방 방식으로 보안 체계를 전환

■ 위치 기반 추가인증으로 생체 인증 데이터 해킹 이후의 자금 탈취 위험까지 방지

- Starling Bank는 고객이 자택 등 특정 장소를 안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위치 기반 보안기능인 ‘Safe Locations’를 함께 도입
 - 집이나 직장 등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위치를 5개까지 지정하고, 해당 지역 밖에서 자금을 이동하면 추가 보안 확인을 요구해 금융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
 - 안전 지역 안에서는 기존 거래 절차를 유지하고, 위험한 위치에서만 보안을 강화해 고객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
- 해당 기술은 이용자의 신원뿐 아니라 거래 위치와 거래 유형, 그리고 기기 상태를 함께 판단하는 상황인지형 금융보안 체계로 발전한 사례로 평가
 - 디지털 위협에 대응하는 이상거래탐지(FDS) 체계에 동작 센서 기반 실시간 물리적 탈취 탐지를 결합해, 금융 보안 대응 범위를 디지털에서 하드웨어 영역까지 확장

[1] “UK banks wrestle with phone-snatching surge”, The Banker, 202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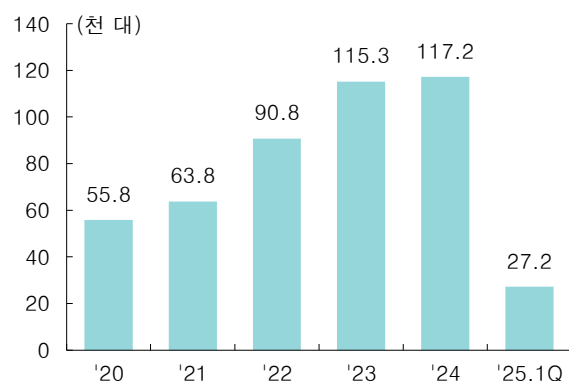
■ 스마트폰 도난 증가와 관련한 금융 범죄 증가가 모바일 금융 보안 체계 강화를 촉구

- 스마트폰이 금융거래와 본인인증 수단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단말기 도난이 계좌 접근과 부정 송금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확대
 - '25년 3월까지 영국의 휴대전화 도난은 약 2만 7천 건으로, 자전거·오토바이를 이용한 스마트폰 날치기도 주요 금융 위협으로 부상
 - 영국의 '25년 모바일뱅킹 사기 건수도 전년보다 21% 증가해 금융회사의 실시간 탐지와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 주요 금융기관들은 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탈취 이후 계좌 접근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한 보안 수칙과 대응 절차를 강화
 - JP모건과 BNP 파리바는 스마트폰 도난 및 사기 위협에 대한 경고를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

■ 국내 금융사도 기기 움직임과 거래 환경을 반영한 물리적 보안 체계를 도입할 필요

- 국내 금융 보안은 악성 앱 탐지와 비대면 보이스피싱 예방 등 소프트웨어 위협 차단에 집중돼 단말기 탈취와 같은 물리적 위험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
 - 고객이 지정한 안전지역 밖에서 고액이체·예적금 해지 등 중요거래가 발생하면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
- 특히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실·도난 위험에 대응해 여행객 맞춤형 능동 금융 안전망 도입을 검토할 필요
 - 출국이나 해외 로밍을 감지하면 여행 안전 모드를 안내하고, 물리적 보안 체계를 기반으로 고액 이체 제한·추가 생체 인증·거래 지연 등을 적용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

■ 영국 런던 휴대전화 도난 건수 추이



자료 : 런던광역경찰청(MPS)

■ 영국 모바일뱅킹 금융사기 발생 건수 추이

연도	발생건수 (건)	피해액 (만 파운드)
2020년	10,155	2,160
2021년	11,270	2,580
2022년	12,361	3,420
2023년	20,032	4,550
2024년	20,879	4,900
2025년	25,180	4,390
CAGR	19.9%	15.2%

자료 : UK Finance

로손,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범 도입

송형은 연구원

일본의 대형 편의점 체인인 로손이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JPYC)을 기존 POS 시스템에 연동하는 시범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소비자는 기존 QR 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가맹점은 유통DB와 연계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2023년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발행·유통 규제가 정비된 후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 결제로 확장되고 있다. 국내도 스테이블코인 제도정비와 결제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 일본 대형 편의점 로손이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POS 결제를 시범 도입^[1]

- '26.8월 로손은 도쿄 미나토구 소재 매장에서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JPYC 결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 유통기업 로손, 통신기업 KDDI,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해시포트(HashPort) 등 3사가 협력해 기술 실증을 추진
- KDDI와 로손 간 자본·업무 제휴를 기반으로, 3사 임직원 대상 테스트를 거쳐 결제 처리 속도와 에러 대응 절차 등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
- 단발성 이벤트나 별도 결제 단말기 추가 방식이 아닌 전국 단위의 대형 유통 프랜차이즈의 기존 POS에 스테이블코인을 연동시킨 일본 최초의 실증 사례
 - 시범 사업을 통해 POS 시스템 연계 안정성과 실제 결제 소요 시간 등을 검증한 뒤, 점포 결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

■ 기존 QR 결제 방식과 POS 인프라를 활용해 소비자와 가맹점의 도입 부담을 최소화

- 소비자가 '해시포트 월렛' 앱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제시하면, 점원이 기존 매장 스캐너로 인식해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기존 간편결제와 동일한 형식
- 가맹점은 별도의 암호화페 지갑을 개설·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결제 정보는 기존 POS망을 거쳐 수량, 시간대별 매출, 재고 등 유통DB와 자동 연계
- 이는 신용카드나 QR결제 대비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별도 결제 처리에 따른 현장 점원의 업무 부담과 계산 실수 가능성을 최소화

[1] “ローソン、ステーブルコインでの店頭決済検討 小売にも普及”, Nikkei, 2026.7.

■ 규제체계 정비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실생활 결제와 기업 정산 영역으로 확산

- 일본은 '23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 수단'으로 법제화하여 발행·유통 관련 규제 공백을 해소^[2]
 - 발행 주체를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로 제한하고 발행액 100% 이상의 준비자산 보유를 의무화해 신용 리스크를 해소
 - 스테이블코인 취급 시 사업자에게 '전자결제 수단 등 거래업자'로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송금 한도 설정 등 유통 관련 규제도 구체화
- 제도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 거래를 넘어 소매 결제와 기업 정산으로 확대
 - 일본 물류 기업 AZ-COM 마루와홀딩스는 약 2,300개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운송 위탁 대금을 JPYC로 정산해 비용 절감과 지급 속도 개선을 추진^[3]
 - '26.4월 오사카의 오키노미야키 전문점 '센보'가 일부 점포에 JPYC 결제를 도입했으며, '26.7월 도쿄와 치바의 치과의원도 해리포트와 함께 JPYC 결제를 도입할 예정

■ 국내도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적 정비와 함께 결제 구조 변화에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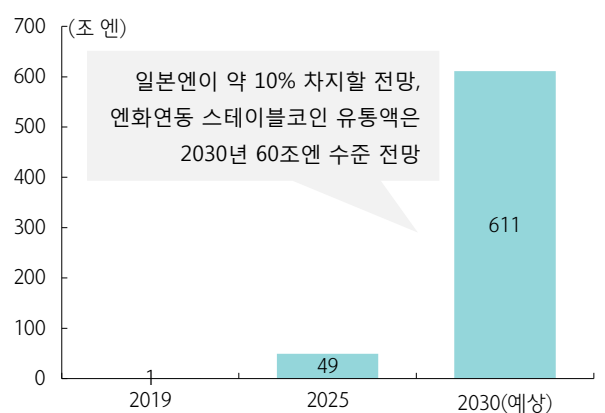
- 국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다룰 2단계 입법 진행과정에서 일본의 발행 주체, 준비자산 의무, 해외 발행 코인 유통 한도 등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
- 스테이블코인 기반 POS 결제가 확산될 경우, 카드사·PG사는 결제·중개 수수료 기반 사업이 대체될 가능성에 대비해 역할 재정립과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
- 일본 사례는 규제 정비 후 민간 유통망과 결제 인프라의 빠른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며, 향후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전개 방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4]

■ 일본 자금결제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법적 지위	가치변동이 심한 암호자산과 분리하여 법정화폐와 1:1 연동되는 전자결제 수단으로 법제화
발행자	기존의 은행, 자금이동업자, 신탁회사
투자자 보호	준비자산은 은행의 신탁에 보관, 100% 은행 예금으로만 구성
유통·중개	스테이블코인 취급 시 '전자결제 수단 등 거래업자' 등록 필요
해외코인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 약정, 송금 1회당 이전 가능 금액은 100만 엔 이하로 한정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시장 규모 전망



자료 : JPYC Inc

[2] "일본의 암호자산 규제 동향", 자본시장연구원, 2025.7.7

[3] "Japan logistics provider for Amazon to use JPYC stablecoin in operations", Nikkei Asia, 2026.7.20

금리: 다시 고조된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

민현하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중동 전쟁 재개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재정 건전성 이슈도 함께 부각되며 상승하였다. 韓 금리는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폭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며 상승했다. 7월 금통위에서는 성장, 물가, 금융안정 리스크 등 기준금리 결정 요인이 모두 금리 인상 지지를 확인하며 기준금리 25bp 인상을 결정하였다. 韓 금리는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금리, 중동 전쟁 재개에 따른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이슈로 상승

- 美 금리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유가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연준 이사들이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승
 - 美 2/10년물 금리 추이(%) : 6.30일 4.18/4.47 → 7.23일 4.35/4.70(+17.5/+22.8bp)
- 다만, 美 물가(CPI MoM -0.4%, 예상치 -0.1%)와 고용 데이터가 모두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연준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
 - 美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감(만 명) : 3월 17.8 → 4월 11.5 → 5월 17.2 → 6월 5.7
- 글로벌 금리는 日의 성장 투자와 재정 지출을 강조한 경제·재정운영 방침과 독일의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 발표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며 상승
 - 日/독일 10년물 금리 추이(%) : 6.30일 2.69/2.86 → 7.23일 2.78/3.23(+8.8/+36.8bp)

■ 韓 금리,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으로 기준금리 인상 폭 확대 우려가 높아지며 상승

- 韓 금리는 6월 CPI(YoY +3.2%)에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호조로 '26년 성장률 상향 기대가 커졌고 기준금리 인상도 반영해 상승
 - 韓 3/10년물 금리 추이(%) : 6.30일 3.70/4.09 → 7.23일 3.92/4.39(+21.4/30.1bp)
- 특히, 7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반도체 가격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도 증가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폭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 연내 추가 1~2회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는 3.5%의 기준금리 수준을 선반영하고 있으며 단기금리도 서서히 상승폭을 확대
 - 통안증권 91일물/1년물(%) : 6.30일 2.66/3.01 → 7.23일 2.75/3.32(+7.7/29.7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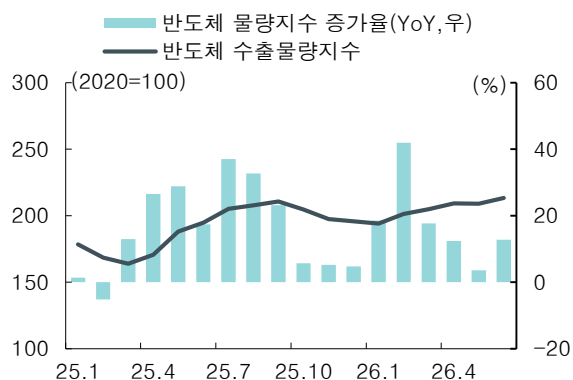
■ 7월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요인들이 모두 금리 인상을 지지해 기준금리를 25bp 인상

- 7월 금통위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경제 성장,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 가계대출 오름세 등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2.75%)
 - 총재는 반도체 경기 호조로 '26년 성장률이 5월 전망치(2.6%)를 큰 폭 상회할 것이라 발표
- 총재가 직접적으로 반도체 가격 상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반도체 경기 호조의 파급효과는 기준금리 결정 요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 또한, 최근 유가와 환율 하락에도 수요측 물가 압력 확대 가능성, 중동 전쟁 재발, 기상여건 악화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도 경계할 필요
 - \$68대까지 하락했던 WTI 선물가격이 중동 긴장감 재고조 이후 \$92.1(7.23일)로 반등

■ 시장금리, 유가 반등으로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고금리 수준을 이어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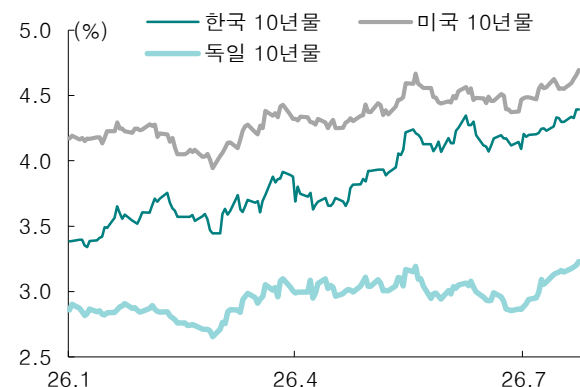
- 중동 전쟁 재개로 유가가 재상승함에 따라 3분기에도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대될 전망
 - 선물시장에 반영된 12월 美 기준금리 수준 (%) : 동결 16, 1회 인상 39, 2회 인상 32(6.30일) → 동결 9, 1회 인상 34, 2회 인상 37(7.22일)
- 국내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가 반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연내 추가 2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증가
- 韓 채권시장은 8월 연속 인상을 우려하는 가운데 한은 총재가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한 통화정책 시행을 예고한 만큼 경제 지표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70%~4.10%, 4.20%~4.45% 범위로 전망 

■ 韓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추이



주 :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3개월 이동평균을 활용
자료 : 한국은행

■ 주요국 10년물 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외환: SK하이닉스發 수급개선으로 하락

이 동 현 연구원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전쟁 재개 등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ADR 상장 대금 유입 및 외국인 증시 매도 축소, 성장 서프라이즈 등으로 큰 폭 하락했다. 달러화는 연준의 통화긴축 우려 축소에 약세 압력을 받았으나 중동 긴장감 재고조로 약세 폭이 축소되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환전 수요 유입은 기타 수출기업의 달러 공급을 자극하여 외환시장 수급을 개선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대외적 원화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환전 등 수급 개선 및 경제 성장 확대 등으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SK하이닉스 상장대금 유입, 외국인 증시 매도 축소 등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7월 초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경신(7.2일 1,555.8원 마감) 후 SK하이닉스 ADR 상장대금 유입 및 외국인의 증시 매도 완화로 인한 수급 개선, 美금리인상 우려 축소에 따른 달러 약세 등으로 1,460원대까지 90원 이상 하락
 - 2분기 월 평균 외국인 증시 순매도는 35조원이었으나 국내증시 하락으로 인해 7월 외국인 순매도는 23일 기준 8조원으로 대폭 축소
- 미국-이란 군사 충돌 재개에 따른 안전통화 수요 확대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달러 강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 개선의 영향으로 원화 강세 지속
 - 예상치를 상회한 2Q 성장률 발표에 따른 8월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원화 강세 확대

■ [국제 환율] 美 달러화, 금리인상 전망 후퇴로 약세 후 유가 급등 우려로 약세폭 축소

- 美 달러화는 고용 및 물가 지표 예상치 하회로 통화긴축 우려가 완화되며 약세 압력을 받았으나 중동 갈등 재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미-이란 군사충돌 확대 후 美 휘발유 가격 갤런당 4달러대로 반등) 등으로 약세폭 축소
 - 美 6월 비농업 고용(예상:11.3만, 실제: 5.7만), CPI(MoM, 예상: 0.1%, 실제:-0.4%)
- 유로화는 중동 전쟁 재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우려 및 英 파운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ECB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독일 경제심리지수 개선으로 소폭 강세
 - 파운드화는 앤디 버넌 英 신임 총리의 확장재정 우려로 英鎊채와 더불어 약세
- 엔화는 당국의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실개입 부재와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 다카이치 내각의 재정지출 확대 전망에 약세폭 확대
 - 엔/달러 환율은 '86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163엔대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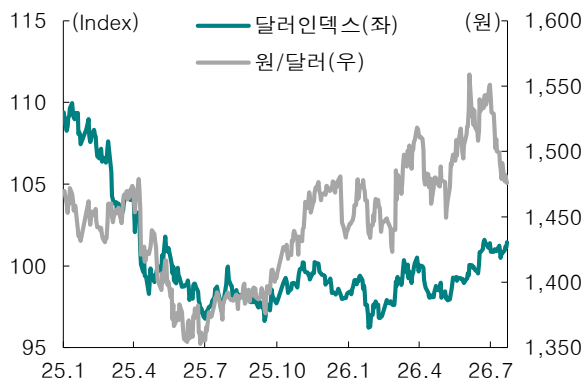
■ SK하이닉스 ADR 상장 대금 환전으로 외환시장 수급이 크게 개선

- 대외적인 약세요인(중동 군사적 긴장감 고조, 美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초엔저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수급 개선 영향으로 원화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
 - 최근 환율 급등의 주요원인이었던 수급 쏠림 개선으로 환율과 펀더멘탈 괴리 축소
- 특히, 265억 달러(약 40조원) 상당의 SK하이닉스 나스닥 ADR 상장 대금이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환전될 것이라는 소식에 수출업체들의 선제적 선물환 및 현물환 매도가 확대되어 환율 급락에 기여
 - 시장은 상장 대금 환전이 약 2~3개월(40~60거래일)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하이닉스의 환전 물량은 외환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의 약 2.5~4%에 달하는 공급 압력을 가할 것으로 추정
 - 중공업체(한화오션 등)의 선물환 매도 또한 가세하며 외환시장 공급 확대

■ 대외여건 및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수급 개선으로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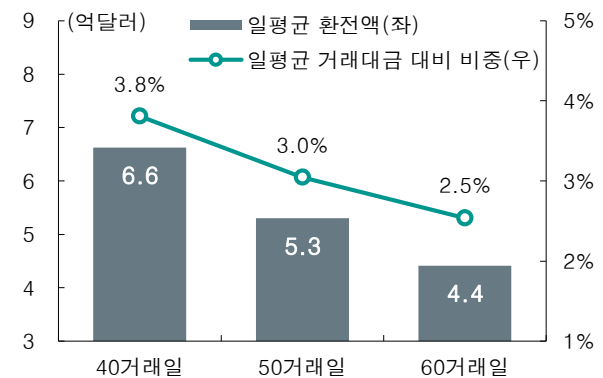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수출기업들의 대규모 환전 물량으로 인한 외화공급이 지속되는 등 외환시장 수급 개선 기대감에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국내증시 조정에 따른 외국인 매도의 일시적 완화 또한 공급 우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수출호조로 올해 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원화강세 요인
-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유가 상승 및 연준 통화긴축 우려로 인한 달러화 강세, 환율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수입업체 달러 실수요 등) 유입 가능성 등으로 추가 하락폭은 제한될 소지
 - 원/달러 환율은 1,440~1,500원에서 주거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

■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 SK하이닉스 상장 대금 환전 속도별 현물환 시장 공급 압력



주 : 일평균 거래대금은 상반기 원/달러 거래대금의 평균
자료 : 인포맥스

부동산: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으로 시장 위축 전망

이재원 수석연구원

주택 매매가격은 경기 남부권역을 비롯한 수도권의 상승세와 지방광역시의 하락 폭 축소로 전국적인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전월세가격 상승이 임대거주자의 대다수인 30대의 주택 구매로 이어져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한편,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주담대 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모집인의 접수가 중단된 점은 주택가격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공급 및 거래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의 가격 상승 폭 확대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

- 경기 남부권역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었고, 지방광역시는 하락 폭이 축소되면서 전국적인 상승세는 지속
 -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MoM) : 0.16%(4월) → 0.21%(5월) → 0.33%(6월)
- 규제지역 일부 인근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어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¹⁾으로 추가 지정
 - 주요 지역 변동률(% , MoM, 5월/6월) : 경기 화성시 동탄구 1.57/6.81
- 지방광역시는 3개월 연속 하락세인 가운데,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발표된 광주는 하락 폭이 전월 대비 크게 축소(-0.31%)되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²⁾
 - 5대광역시 주택가격 변동률(% , MoM) : -0.01%(4월) → -0.09%(5월) → -0.05%(6월)

■ 전월세가격 상승이 임대거주자의 대다수인 30대의 주택 구매로 이어져 매매가격이 상승

- 전반적으로 부담이 적은 중저가 주택 거래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는 30대 매수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
 - 30대 연령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 32.6%(1월) → 43.4%(3월) → 41.2%(5월)
- 규제지역 중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외곽 및 경기도의 중저가 아파트 매매거래 비율이 증가하였고, 유형별로는 비아파트의 가격 상승 폭이 확대
- 주담대 한도 축소, 실거주 의무 등 강화된 규제 속에서 규제지역 인근 비규제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적은 지역 또는 선호입지의 비아파트 수요가 증가

[1] 7.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2]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광주 군공항 반경 10km를 7.1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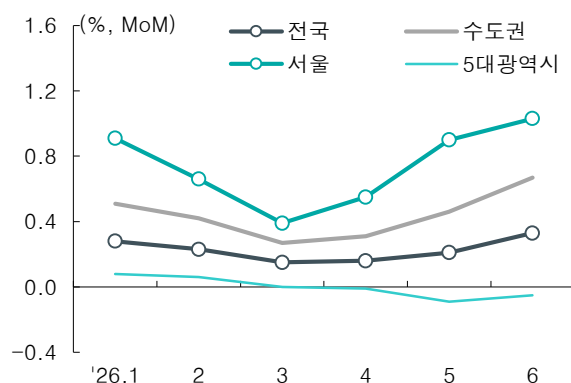
■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주담대 한도 축소 및 모집인 접수 제한

- 4.1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기간별 목표에 맞춰 관리되는 주담대가 아닌 신용대출액 증가의 영향으로 주담대 한도 축소 및 대출모집인 접수를 중단
 - 일부 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였으며, 5대 시중은행 모두 모기지보험 가입이나 대출모집인의 접수를 제한
- 주담대 한도 축소와 일시 접수 중단은 당분간 대출의존도가 높은 서울 외곽지역의 매수세를 위축시키고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6월 주요 지역 대출지수(%) : 중랑구 60.04%, 노원구 59.30%, 금천구 58.15%
-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들이 제2금융권 등 고금리상품을 이용하거나 자금조달 부담이 적은 비아파트 및 저가 주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당분간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위축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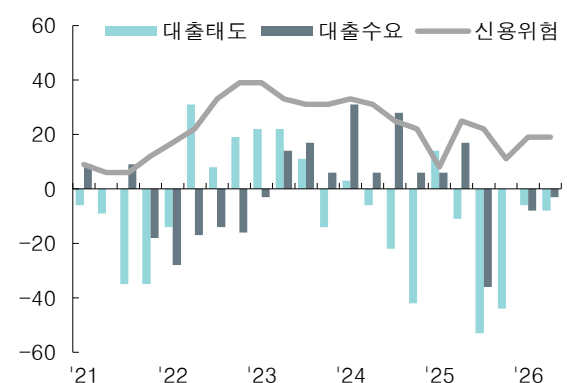
- 7.16일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 상회 및 금융·외환시장의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p 인상을 결정
 -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2분기까지의 견조한 GDP 성장세까지 고려하면 하반기 1~2회 추가 인상 가능성이 예상되며,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
- 부동산 PF 위축과 함께 조달금리 상승으로 사업성 저하 및 분양가의 상승이 예상되며 지방 소재 사업장이 많은 중소건설사의 경영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부동산PF 신규 취급액(조 원) : 23.6('25.2Q) → 20.6(3Q) → 20.7(4Q) → 16.8('26.1Q)
-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

■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태도



자료 : 한국은행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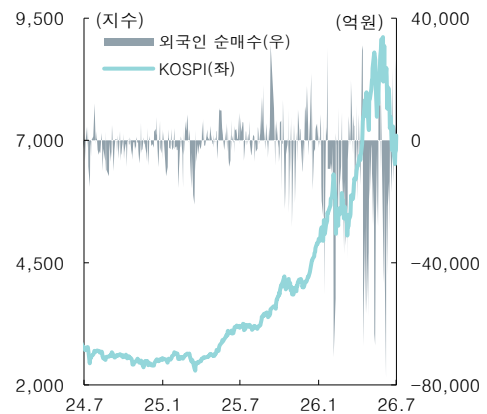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25월말	2.63	2.81	2.79	3.48	2.95	3.24
6월말	2.65	2.92	3.63	4.38	3.63	4.38
7월 17일	-	-	-	-	-	-
7월 20일	2.73	2.91	3.72	4.59	3.90	4.15
7월 21일	2.69	2.91	3.71	4.57	3.87	4.12
7월 22일	2.69	2.91	3.71	4.60	3.91	4.17
7월 23일	2.68	2.91	3.70	4.61	3.92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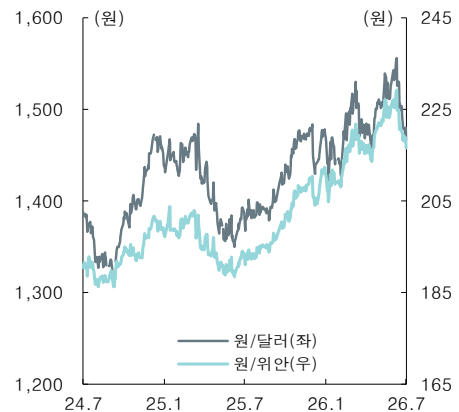
::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25월말	4,214.2	132,135	408	-4,886
6월말	8,394.7	426,845	371	-77,560
7월 17일	-	-	-	-
7월 20일	6,516.3	296,906	346	5,272
7월 21일	6,748.0	248,107	391	3,087
7월 22일	6,797.7	285,741	374	26,299
7월 23일	7,096.9	268,561	397	21,487



::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4년말	1,472.5	934.1	201.4	1,522.7
'25월말	1,439.0	916.1	204.4	1,686.3
6월말	1,549.4	953.1	228.1	1,769.5
7월 17일	1,478.5	915.0	219.4	1,699.8
7월 20일	1,478.4	908.4	218.0	1,685.1
7월 21일	1,473.4	903.1	218.9	1,688.4
7월 22일	1,480.1	905.0	218.0	1,684.9
7월 23일	1,466.8	895.9	216.6	1,6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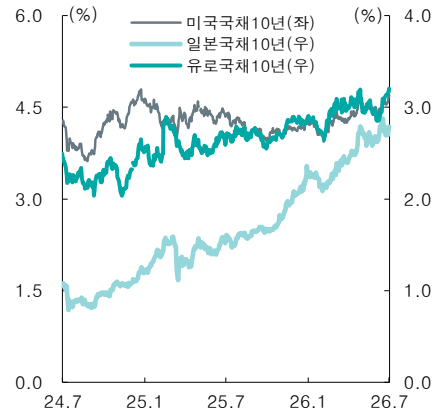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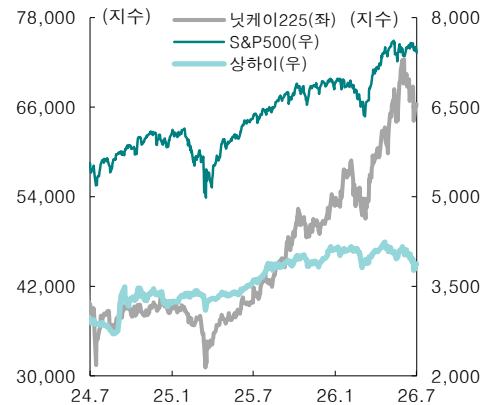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 효F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4년말	4.33	4.69	4.24	4.57	1.10	2.37
'25월말	3.64	4.01	3.47	4.17	2.07	2.86
6월말	3.63	3.63	4.17	4.47	2.68	2.86
7월 17일	3.63	3.63	4.18	4.55	2.70	3.13
7월 20일	3.63	3.63	4.21	4.59	2.70	3.15
7월 21일	3.63	3.63	4.26	4.63	2.73	3.16
7월 22일	3.63	3.63	4.30	4.65	2.76	3.17
7월 23일	3.63	3.63	4.35	4.69	2.79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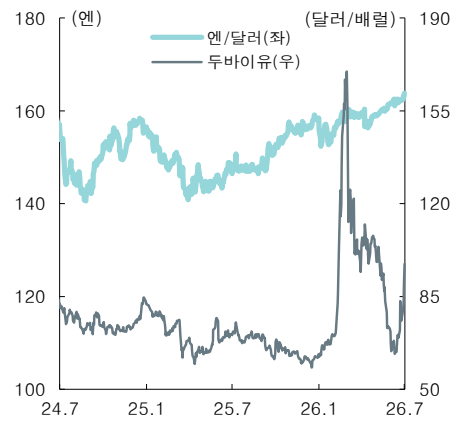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25월말	6,845.5	50,339.5	3,968.8	5,791.4
6월말	7,499.4	70,062.3	4,094.4	6,328.1
7월 17일	7,457.7	64,141.1	3,764.2	6,230.9
7월 20일	7,443.3	-	3,796.3	6,227.4
7월 21일	7,509.2	66,232.2	3,864.4	6,285.6
7월 22일	7,499.0	66,115.6	3,867.0	6,317.0
7월 23일	7,408.3	66,422.6	3,876.8	6,210.2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25월말	156.63	1.175	61.6	4,341.1
6월말	162.48	1.142	68.3	4,038.5
7월 17일	162.39	1.144	76.9	4,018.8
7월 20일	162.44	1.141	79.7	4,015.9
7월 21일	163.14	1.140	82.5	4,076.4
7월 22일	163.12	1.141	89.4	4,151.9
7월 23일	163.81	1.137	97.2	4,049.5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14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6년 7월 24일 인쇄

2026년 7월 27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14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